

#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 문법의 형태론

-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오규환\*

차례

1. 들어가며
2. ‘언어와 매체’의 ‘형태론’ 관련 내용 항목
3.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간의 괴리
4. 나오며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5종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론 분야의 여러 설명들이 기술 문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문법의 단어는 음운론적 단어로 정의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음운론적 단어를 수용하면서도 그 기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단일어’의 정의도 만족스럽지 않은 일부 교과서의 기술은 문제가 있다. 둘째, 기술 문법에서는 혼성과 두음절어 형성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 형식의 감소가 전제되는 새말의 형성을 설명할 때에 이 두 과정을 구별하지 않기도 한다. 셋째, 학교 문법에서 단어 부류를 분류할 때에 기술 문법의 설명과 차이를 보이거나 비정합적인 설명을 베풀고 있는 품사에는 ‘조사’, ‘관형사’, ‘감탄사’, ‘대명사’ 등이 있다. 넷째, 학교 문법에서 품사 분류 기준으로 ‘형태’를 설명하거나 용언의 활용에서 관찰되는 이형태 교체를 설명할 때에 ‘형태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불변어/가변어’ 개념이 정합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학교 문법, 기술 문법, 형태소의 식별 및 분석, 단어의 정의, 단어의 분류, 단어의 형성, 단어 부류, 용언의 활용

## 1. 들어가며

기술 문법(descriptive grammar)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학교 문법(school grammar)에서 사용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바로 그 전문 용어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이되어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sup>1)</sup> 학교 문법은, 말 그대로 학습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문법을 기술한 여러 교과서들에서는 대부분 전문 용어를 정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별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를 정리한 아래의 <표 1>을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 과목의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언어와 매체’ 교과서 5종에 제시된 ‘단어’의 정의

교과서	정의
방민호 외(2019)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이관규 외(2019)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삼형 외(2019)	어절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부분과 조사로 분석하였을 때, 분석된 각각의 단위
최형용 외(2019)	명시적인 정의는 없음
민현식 외(2019)	일반적으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중 가장 작은 단위

주지하다시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sup>2)</sup> ‘단어’를 ‘분리하여 자립적으

1) 이 글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의 개념은 이선웅(2014)와 동일하다.

2) 이후의 논의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표준』의 뜻풀이가 학교 문법의 그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방민호 외(2019)와 이관규 외(2019)만이 『표준』과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삼형 외(2019)와 민현식 외(2019)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삼형 외(2019)는 '단어'라는 개념을 숙지하기 위하여 형태소, 어절, 조사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여러 교과서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김홍범·전후민(2013), 허철구(2015), 최형용(2015), 이현희(2015), 정한테로(2015), 박용찬(2017) 등에서는 2011 교육과정까지의 여러 교과서들에서 '단어' 관련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변모를 거쳐 왔는지, 어떠한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언어와 매체' 과목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 5종의 '형태론' 분야의 일부 전문 용어와 몇몇 현상들이 기술 문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는 기술 문법의 설명이 학교 문법의 설명보다 우월하다든지 지금까지의 학교 문법의 설명 방법은 잘못되었으니 기술 문법의 관점으로 학교 문법을 모조리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문법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집대성한 어엿한 문법의 일종이며, 또 학교 문법 나름의 정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선웅(2014)의 지적처럼 학교 문법은 교육적 효용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내용 항목에서는 즉물적이고 피상적인 기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피상적·즉물적 기술을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의 차이점을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학교

문법에서 관찰되는 비정합적인 기술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논의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면 교육 과정이 개편될 때 학교 문법에서 부정확하게 사용한 전문 용어를 수정하거나 형태론적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학습 현장에서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가 문법 관련 지식을 쉽게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 ‘언어와 매체’의 ‘형태론’ 관련 내용 항목

논의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태론은 단어의 내적 구조와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이해된다. 아래의 <표 2>는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형태론 관련 단원의 차례와 구성 내용을 보인 것이다.

<표 2> ‘언어와 매체’ 교과서별 ‘형태론’ 관련 단원 구성 비교

교과서	단원 차례	단원 구성 내용
방민호 외(2019)	2. 국어의 구조 (2) 단어	① 품사의 분류와 활용 ② 단어의 짜임
이관규 외(2019)	3. 단어와 음운의 탐구 및 활용	① 단어의 분류와 특성 ② 단어의 짜임과 의미
이삼형 외(2019)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2. 단어와 품사	① 단어의 품사와 특성 ②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최형용 외(2019)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2) 단어의 구조와 특성	① 품사의 분류와 특성 ② 단어의 구조와 형성
민현식 외(2019)	II. 단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표현 1. 단어와 국어 생활	① 단어의 짜임과 새말 ② 품사와 국어 생활

위의 <표 2>를 통하여 특징적인 점을 세 가지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교과서에서 형태론과 관련한 내용을 크게 ‘단어의 형성’과 ‘단

어의 분류’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둘째, 민현식 외(2019)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와 매체’ 교과서는 단원 구성의 측면에서 ‘품사’를 제일 먼저 제시하였다는 점이다.<sup>3)</sup> 셋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단원 제목에 ‘새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교과서가 2종이라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07 교육 과정부터 내용 요소에 ‘새로운 단어’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교과서에는 단원 구성 내용에 ‘새로운 단어’나 ‘새말’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었다. 2015 교육 과정 개정에 따라 개설된 ‘언어와 매체’의 단원 구성 내용에 ‘새말’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고무적으로 여길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형태론은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두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토할 내용은 ‘언어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론 관련 내용 항목이다. <표 3>은 형태론 관련 내용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언어와 매체’ 교과서별 ‘형태론’ 관련 내용 항목 비교

교과서	단원 구성 내용 (항목 개수)	내용 항목
방민호 외(2019)	품사의 분류와 활용 (6개)	① 용언의 활용(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② 품사의 통용                      ③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④ 품사 분류의 기준                ⑤ 본용언과 보조 용언 ⑥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차이점
	단어의 짜임 (5개)	① 단어(새말) 형성 방법의 유형 ② 형태소 및 단어의 정의    ③ 형태소 및 단어의 분류 ④ 합성어의 유형(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 종속/대등/융합 합성어) ⑤ 어절, 어근, 접사의 개념
이관규 외(2019)	단어의 분류와 특성 (6개)	① 용언의 활용(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② 품사의 통용                      ③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④ 품사 분류의 기준                ⑤ 본용언과 보조 용언

3) 이는 2011 교육 과정의 ‘독서와 문법’의 단원 구성 체계를 그대로 이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송희(2019: 24)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어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사를 설명하고 그 뒤에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⑥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차이점
	단어의 짜임과 의미 (7개)	① 단어(새말) 형성 방법의 유형 ② 형태소 및 단어의 정의    ③ 형태소 및 단어의 분류 ④ 합성어의 유형(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 ⑤ 합성어와 구의 구별 문제 ⑥ 종합 합성어의 괄호 매김 역설 ⑦ 어근, 접사의 개념
이삼형 외(2019)	단어의 품사와 특성 (11개)	① 용언의 활용(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② 품사의 통용                      ③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④ 품사 분류의 기준    ⑤ 체언 수식 부사 ⑥ 본용언과 보조 용언    ⑦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차이점 ⑧ 대명사 ‘당신’의 다의성 ⑨ 단어(새말) 형성 방법의 유형 ⑩ 용언의 활용형이 굳어진 관형사 ⑪ 고유 명사의 보통 명사화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7개)	① 2자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 문제 ② 형태소 및 단어의 정의    ③ 형태소 및 단어의 분류 ④ 합성어의 유형(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 ⑤ 합성어와 구의 구별 문제 ⑥ 직접 구성 성분의 개념    ⑦ 어절, 어근, 접사의 개념
최형용 외(2019)	품사의 분류와 특성 (6개)	① 품사의 통용                      ②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③ 품사 분류의 기준    ④ 수사와 수 관형사의 구별 ⑤ 동사의 청유형과 명령형    ⑥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차이점
	단어의 구조와 형성 (6개)	① 단어(새말) 형성 방법의 유형 ② 형태소의 정의                      ③ 형태소 및 단어의 분류 ④ 합성어의 유형(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 ⑤ 종결 어미 ‘-다’와 단어 형성 과정 ⑥ 어근, 접사의 개념
민현식 외(2019)	단어의 짜임과 새말 (7개)	① 단어(새말) 형성 방법의 유형 ② 형태소 및 단어의 정의    ③ 형태소 및 단어의 분류 ④ 합성어의 유형(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 ⑤ 직접 구성 성분의 개념 ⑥ 어종에 따른 새말의 유형 ⑦ 어근, 접사의 개념
	품사와 국어 생활 (6개)	① 용언의 활용(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② 품사의 통용                      ③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④ 품사 분류의 기준    ⑤ 수사와 수 관형사의 구별 ⑥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차이점

위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종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아래의 (1)과 같은 9개의 내용 항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 (1)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 항목
  - ㄱ. 품사 분류의 기준
  - ㄴ. 품사의 종류와 특성
  - ㄷ. 품사의 통용
  - ㄹ.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
  - ㅁ. 형태소의 정의
  - ㅂ. 형태소 및 단어의 분류
  - ㅅ. 어근과 접사의 개념
  - ㅇ. 단어(새말) 형성 방법의 유형
  - ㅈ. 합성어의 유형(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

(1)에 제시한 내용 항목은 다시 ‘단어의 분류’와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ㄱ)-(1ㄹ)은 ‘단어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 항목이고, (1ㅁ)-(1ㅅ)은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 항목이다.

한편 아래의 (2)는 일부의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 항목들이다.

- (2)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는 내용 항목
  - ㄱ. 체언 수식 부사: 이삼형 외(2019)
  - ㄴ. 어절의 개념: 방민호 외(2019), 이삼형 외(2019)
  - ㄷ. 수사과 수 관형사의 구별: 민현식 외(2019), 최형용 외(2019)
  - ㄹ. 대명사 ‘당신’의 다의성: 이삼형 외(2019)
  - ㅁ. 고유 명사의 보통 명사화: 이삼형 외(2019)
  - ㅂ. 2자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 문제: 이삼형 외(2019)
  - ㅅ. 굳은 관형사형의 문제: 이삼형 외(2019)
  - ㅇ. 합성어의 유형(종속/대등/융합 합성어): 이삼형 외(2019)
  - ㅈ. 합성어와 구의 구별 문제: 이관규 외(2019), 이삼형 외(2019)
  - ㅊ. 직접 구성 성분의 개념: 이삼형 외(2019), 민현식 외(2019)

ㄱ. 어중에 따른 새말의 유형: 민현식 외(2019)

ㄷ. 종결 어미 ‘-다’와 단어 형성 과정: 최형용 외(2019)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 항목은 총 12개인데 이 중에서 (2ㄱ)-(2ㄷ)은 단어의 분류와 관련되는 내용 항목이고 (2ㄹ)-(2ㅌ)은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는 내용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3)은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 항목들을 제시한 것이다.

(3)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지 않는 내용 항목

ㄱ. 용언의 활용: 방민호 외(2019), 최형용 외(2019)

ㄴ. ‘단어’의 정의: 최형용 외(2019)

전술하였듯이 최형용 외(2019)에서는 ‘단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최형용 외(2019)를 검토하여 보면 최형용 외(2019)의 단어는 음운론적 단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의 내용 항목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언어와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형태론의 쟁점들을 크게 ‘단어의 정의’, ‘단어의 내부 구조 분석’, ‘단어의 형성’, ‘단어 부류의 범주화’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 3. 학교 문법과 기술 문법 간의 괴리

#### 1) ‘단어’의 정의

최근의 기술 문법에서는 ‘단어’를 연구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정의하려



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문장의 형성 과정과 그 제약에 대하여 논의하는 통사론에서의 단어를 ‘통사 원자(syntactic atom)’로 정의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음운의 변동이나 변화를 논의하는 음운론에서는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로 정의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술 문법에서조차 ‘단어의 형성 과정과 내부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는 ‘형태론’에서의 단어는 통사 원자로 정의될 때도, 음운론적 단어로 정의될 때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는 형태론에서 ‘이형태 교체론’을 다루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문제는 학교 문법의 단어가 통사론이든, 음운론이든, 형태론이든지 간에 모두 ‘음운론적 단어’와 그 외연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 언급하였던 <표 1>에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의상 제1장의 <표 1>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언어와 매체’ 교과서 5종에 제시된 ‘단어’의 정의

교과서	정의
방민호 외(2019)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이관규 외(2019)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삼형 외(2019)	어절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부분과 조사로 분석하였을 때, 분석된 각각의 단위
최형용 외(2019)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음운론적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 듯함
민현식 외(2019)	일반적으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중 가장 작은 단위

방민호 외(2019)에서는 ‘단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최소 대립쌍 개념을 설명할 때이다.<sup>4)</sup> 그리고 이때의 단어는 실질 의미를

4) 이삼형 외(2019: 51)에서도 방민호 외(2019)와 마찬가지로 최소 대립쌍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삼형 외(2019)의 단어도 실질 의미를 가지

가지고 있으며 음운론적인 자립성을 띠는 단위로 정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의는 널리 알려져 있는 학교 문법의 정의이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이현희(2015)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 문법에서 단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정의는 느슨한 정의(rough definition)이다. 이러한 정의를 곧이곧대로 이해한다면 ‘나는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문장’도 음운론적인 자립성을 띠고 있으므로 ‘단어’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또한 방민호 외(2019: 56)에서 ‘감감, 캄캄, 감감’ 등과 같은 의성어/의태어/색채어를 ‘단어’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이들이 음운론적 자립성을 띠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성어/의태어/색채어가 만약 단어라면 이들이 9개의 품사 중에 어떠한 품사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라면 이들을 ‘(비자립적) 어근’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학교 문법의 용어로 이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민호 외(2019: 62)에서는 ‘편안케’와 ‘가타부타’를 단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 의미를 가지고 음운론적 자립성을 띤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안케’와 ‘가타부타’를 단어로 처리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편안케’와 ‘가타부타’가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더 나아가 이들이 어떠한 품사에 속하는지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과서는 이관규 외(2019)이다. 이관규 외(2019)에서는 ‘형태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단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관규 외(2019: 103)에서는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가 ‘나’, ‘는’, ‘오늘’, ‘일찍’, ‘자겠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sup> 짐작컨대 이관규

고 음운론적 자립성을 띠고 있는 단위로 정의되는 듯하다.

5) 이러한 문제는 사실 『표준』의 뜻풀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문제이다.

외(2019)에서 ‘나는’의 조사 ‘는’을 단어로 처리하는 이유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나’와 조사 ‘는’을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관규 외(2019)의 정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 (4) ㄱ. 현서가 덧신을 신고 헛기침을 하고 있다.  
 ㄴ. 양치질을 싫어하는 세인이는 장난꾸러기이다.

(4ㄱ)의 ‘덧신, 헛웃음’과 (4ㄴ)의 ‘양치질, 장난꾸러기’에는 각각 ‘덧-, 헛-’이라는 접두사와 ‘-질, -꾸러기’라는 접미사가 관찰된다. 그리고 이 접사들은 이관규 외(2019)의 정의대로라면 단어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자립할 수 있는 말인 ‘신, 기침, 양치, 장난’이라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토할 교과서는 최형용 외(2019)이다. 전술하였듯이 최형용 외(2019)는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 최형용 외(2019)에서 흥미로운 점은 ‘언어와 매체’ 교과서 중 유일하게 동사의 기본형 ‘떡다’의 ‘-다’의 신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형용 외(2019)에서는 용언의 경우는 어간이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일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떡다’를 단일어로 처리하는 이유로 ‘-다’가 종결 어미로서 새로운 단어 형성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sup>7)</sup> 그러나 (5)와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결 어미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기도 한다.

6) 그러나 이관규 외(2019)의 정의를 따른다면 ‘나는’도 단어로 이해될 수 있다. ‘나는’도 ‘자립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7) 더 나아가 최형용 외(2019)에서는 하나의 어간으로 이루어진 용언이 단일어라는 점을 강조하여 ‘떡다’를 ‘떡-’처럼 표현하는 일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사뭇 흥미로운 기술로 보인다. 기술 문법에서는 용언 어간에 ‘-다’를 붙여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5) ㄱ. 글쎄다, 글쎄올시다, 쏘다, 심췌다, 옳다구나  
 ㄴ. 쏘다판, 한다하는, 한다는
- (6) ㄱ. 여보게, 여보시오, 이보게, 이보시오…; 뒤로돌아, 뒤로돌아가,  
 뛰어가, 무릎췌, 무릎앉아, 열중쉬어……
- ㄴ. 받들어충, 세워충; 묻지마청약, 묻지마투자, 묻지마폭행…

위의 (5)는 최형용(2003: 93)에서 종결 어미 ‘-다’가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경우를 보인 것이다. 그리 많은 예가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의 종결 어미 ‘-다’는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더욱이 문제를 ‘-다’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의 종결 어미 ‘-아/어’도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어의 유형이 다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결 어미가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최형용 외(2019)의 진술은 분명 기술 문법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여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9)</sup>

### 3) 내부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기술 문법에서는 단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어기(bas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술 문법이든 학교 문법이든 단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는 ‘어근’과 ‘접사’ 정도인 듯하다.

8) 『표준』의 미등재어인 경우까지 고려하면 ‘안다박수, 땀다방’ 등도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9)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진술이 학교 문법과 기술 문법 사이에 일정한 우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글의 주된 관심사는 학교 문법과 기술 문법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학교 문법 내적으로 비정합적인 설명 방법을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기술 문법이든 학교 문법이든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은 단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할 때와 단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때에 모두 사용된다. 본 절에서는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단어를 그 내부 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학교 문법의 설명 방법을 검토하여 볼 것이다.

먼저 단일어를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보자. 다음의 (7)은 학교 문법에서 이해하는 단일어의 정의를 보인 것이다.

(7)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단일어’의 정의

교과서	정의
방민호 외(2019)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이관규 외(2019)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이삼형 외(2019)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최형용 외(2019)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민현식 외(2019)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

위의 (7)에 제시한 ‘단일어’의 정의는 일견 대동소이하여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8)에 제시한 ‘어근’과 ‘접사’의 정의와 함께 살펴보면 이삼형 외(2019)와 최형용 외(2019)를 제외한 3종의 교과서에 제시된 단일어의 정의는 학습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의로 보인다.

(8)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어근’과 ‘접사’의 정의

교과서	정의	
방민호 외(2019)	어근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접사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
이관규 외(2019)	어근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이삼형 외(2019)	어근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최형용 외(2019)	어근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
	접사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민현식 외(2019)	어근	단어 형성 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위의 (7)-(8)을 함께 고려하면 (7)의 이삼형 외(2019)와 최형용 외(2019)는 단일어를 정합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의로는 ‘꽃사과’와 ‘나무꾼’을 파생어로, ‘사과’와 ‘나무’는 단일어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정의로는 ‘꽃사과’와 ‘나무꾼’을 단일어로 처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꽃사과’와 ‘나무꾼’에 각각 접사 ‘꽃-’과 ‘-꾼’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도 어찌하였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혹자는 파생어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로 정의하였으므로 단일어를 정의할 때, ‘하나의 어근’에 보조사 ‘-만’을 굳이 더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 문법이 오해의 소지 없이 최대한 정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2002)에서 단일어를 ‘어근 하나만으로 단어가 형성된 경우’로 정의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에도 보조사 ‘-만’이 단일어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을 돌려 ‘복합어’와 관련된 기술들을 교과서별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검토할 내용은 방민호 외(2019)의 ‘파생어’이다. 방민호 외(2019: 78)에서는 ‘몹치’의 ‘-치’를 접사로 분석하고 있는데 『표준』에서는 이러한 접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검토할 교과서는 이관규 외(2019)이다. 이관규 외(2019)에서

는 ‘공부하다’와 ‘명예롭다’의 접사를 각각 ‘-하다’와 ‘-롭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용언을 기본형으로 제시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에 이관규 외(2019)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기술 문법에서 이들의 형태는 ‘-하-’와 ‘-롭-’처럼 제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선어말 어미’를 제시할 때에 ‘-었-’이나 ‘-겠-’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므로 동사/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을 선어말 어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검토할 교과서는 이삼형 외(2019)이다. 전술하였듯이 이삼형 외(2019)는 단일어에 대한 정의가 정합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으며 복합어도 문제없이 잘 정의되어 있다. 다만 단어의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뿐이라고 설명한 것은 지나치게 느슨한 기술이 아닐까 한다. 앞서 (5)-(6)에 제시한 ‘글썸다, 글썸을시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미가 단어의 구성 요소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젊은이, 굳은살’ 등과 같은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정해진 양의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알려 주어야만 하는 학교 문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에게 단어의 구성 요소를 어근과 접사로만 한정하여 소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만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과서에 제시된 단어들은 학습자들이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언어와 매체’에서는 새말의 형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때 어근과 접사로만 분석하기 어려운 ‘네티켓, 할빠’ 등과 같은 혼성어(blends)라든지 ‘심쿵, 아점’ 등과 같은 두음절어(acronym)가 다수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어가 어근과 접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기술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sup>10)</sup>

10) 이러한 문제는 이삼형 외(2019)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에서 관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네 번째로 검토할 교과서는 최형용 외(2019)이다. 최형용 외(2019)는 이삼형 외(2019)와 마찬가지로 단일어와 복합어에 대한 정합적인 정의를 보여 주고 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의는 2자 이상의 한자어를 분석할 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문제가 없는 정의로 보인다. 다만 이관규 외(2019)를 검토할 때에도 언급하였듯이 피동 접미사를 ‘-시키다’처럼 ‘-다’ 결합형으로 제시한 것은 학습자들이 오해할 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교과서는 민현식 외(2019)이다. 전술하였듯이 단일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민현식 외(2019)는 방민호 외(2019)나 이관규 외(2019)와 동일한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접미사를 제시할 때에 ‘-스럽다’와 같이 기본형을 제시하는 것도 여타의 교과서들과 비슷하다는 점 정도가 기술 문법과 보이는 차이점이라고 언급해 둘 만하다.

내부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접사’의 정의와 ‘파생어’의 정의에 대하여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여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만 나뉘어야 한다. 즉 (8)에 제시한 접사의 정의에 따르면 어미가 직접 구성 성분인 관형사 ‘다른(다르+-은)’의 ‘-은’을 접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은’을 접사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은 단일어로 처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르’와 ‘-은’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는 관형사 ‘다른’을 단일어로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언어와 매체’의 교과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차이는 학교 문법과 기술 문법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11) 이현희(2015)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일 형태소로 분석되는 조사 ‘-이/가’, ‘-을/를’ 등이 단어 분류 체계의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학교 문법과 기술



#### 4) ‘단어’의 형성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언어 공동체에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즉 정착어(established word)의 형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이 형성된 단어, 즉 신어의 형성 과정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기술 문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형식의 감소를 전제하는 단어 형성 과정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제법 큰 차이가 관찰된다. 다음의 (9)는 교과서별로 형식의 감소를 전제하는 단어 형성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인 것이다.<sup>12)</sup>

(9)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형식 감소형 새말의 형성’에 대한 기술

교과서	유형	실제
방민호 외(2019)	머리 글자의 결합	개취(개인의 취향), 깔놀(깔짝 놀라다),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
	단어의 일부 결합	컴맹(컴퓨터+ㅁ), 네티켓(네티즌+에티켓)
이관규 외(2019)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줄임말)	아점(아침과 점심 사이의 식사), 짬짜면(짬뽕과 짜장면을 반씩 담아 먹는 음식), 깔놀[깔(짝)+놀(라다)], 심쿵[심(장이)+쿵(하다)], 혼밥[혼(자)+밥(을 먹음)]
이삼형 외(2019)	축약	짬짜면(그릇 하나에 짬뽕과 짜장면을 반씩 담아 먹는 음식), 맛저(‘맛있는 저녁’을 줄여 이르는 말), 베댓(best+댓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 할빠(할아버지+아빠, 손주를 직접 양육하는 할아버지)
최형용 외(2019)	두 단어의 앞 음절만 따서 결합한 축약어	열공(열심히 공부함), 국대(국가 대표), 부먹(부어 먹기), 짹먹(찍어 먹기)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을 따서 결합한 축약어	칼제비(칼국수와 수제비를 한번에 맛볼 수 있는 음식), 씹추(씹을 배추)
민현식 외(2019)	단어들의 첫 말을 따서 만든 새말	심쿵(심장이 쿵), 강추(강력 추천), 혼밥[혼자(먹는) 밥], 문상(문화 상품권), 취준생(취업 준비생)

문법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글의 밑줄은 모두 필자가 친 것이다.

	비생), 책사이(책과 사람의 이야기)
두 단어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절단한 후 각 부분을 결합하여 만든 새말	네티켓(네티즌+에티켓), 졸볶이(졸면+떡볶이), 차계부(차+가계부), 라볶이(라면+떡볶이)

위의 (9)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술 문법에서 ‘두음절어 형성’과 ‘혼성’으로 설명하는 형식 감소형 단어 형성 과정을 구별하여 기술한 교과서(방민호 외 2019, 최형용 외 2019, 민현식 외 2019)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이관규 외 2019, 이삼형 외 2019)가 모두 관찰된다는 점이다. 둘째, 문장(절)에서 형식의 감소가 이루어진 새말과 구(단어)에서 형식의 감소가 이루어진 새말이 모두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과 얽혀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 문법이든 기술 문법이든 새로운 단어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이라는 결합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레 형식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새말’의 형성과 관련하여 형식 감소형 단어를 소개한 것은 ‘새말’이 기존의 ‘정착어’와 보이는 차이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형식의 감소’에 관여하는 원리가 하나의 원리로만 설명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논의마다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기술 문법에서는 ‘두음절어 형성’과 ‘혼성’을 별도의 단어 형성 과정으로 이해하는 논의가 적지 않다(노명희 2010, 이찬영 2016, 오규환 2016 등). 두음절어 형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둘 이상의 언어 단위를 결합한 이후에 형식을 감소시키는 과정인 반면에, 혼성어 형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둘 이상의 언어 단위의 일부를 절단한 이후에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음절어 형성

이 기준에 존재하는 언어 단위(절, 구, 단어)에서 일어나는 형식의 감소인 반면, 혼성어 형성은 기준에 존재하는 언어 단위에서 일어나는 형식의 감소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두음절어인 ‘짬짜면, 심쿵’ 등과 ‘네티켓, 할빠, 삼추’ 등의 형성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는 편이 학습자들에게는 더 나은 설명 방법일지도 모른다.<sup>13)14)</sup>

### 5) 기능/분포/의미에 따른 ‘단어’의 분류

기술 문법에서든, 학교 문법에서든 단어를 범주화하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단어의 내부 구조를 고려하여 단어들을 이러저러한 범주로 묶어 보는 것이고, 둘째는 단어의 기능/분포/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어들을 범주화하여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단어의 내부 구조에 따른 단어의 구분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수많은 단어들을 몇 가지 단어 부류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후자의 경우, 즉 품사 분류와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여 볼 것이다. 먼저 관계언, 즉 조사와 관련된 기술부터 확인하여 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살펴볼 교과서는 방민호 외(2019)이다. 방민호 외(2019: 72)에서는 관계언이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은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은 학습자들이 ‘관계언’이 ‘문장에 쓰인 모든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오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3) 최형용 외(2019)에서 ‘부먹파(‘부먹’을 하는 사람)’, ‘찍먹파(‘찍먹’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형식의 감소가 이루어진 단어가 또 다른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양상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바,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무척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14) 박용찬(2017)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형식의 감소가 일어난 새말의 경우를 ‘축약(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음운 과정으로서의 축약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교과서는 이관규 외(2019)와 이삼형 외(2019)이다. 이관규 외(2019)는 격 조사가 ‘체언과 결합하여 앞말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기술하였다. 이삼형 외(2019)에서도 격조사를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진술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오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현식 외(2019)의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나 최형용 외(2019)의 ‘문장 성분의 자격을 나타내는 단어’처럼 격 조사가 표지(marker)라는 점을 부각하는 진술이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는 더 합리적인 정의로 보인다.<sup>15)</sup>

다음으로 검토할 품사는 수식언, 그중에서도 관형사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체언이 관형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방민호 외(2019)에서는 체언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기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민현식 외(2019)에서는 수식언을 문장에서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기술 문법의 관점이든, 학교 문법의 관점이든 방민호 외(2019)의 설명보다는 민현식 외(2019)의 설명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체언이 체언을 수식하는 일은 한국어에서만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어들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 문법에서 수식언과 관련된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검토할 품사는 ‘감탄사’이다. 감탄사와 관련하여 이삼형 외

15) 한편 이삼형 외(2019)와 최형용 외(2019)에서 조사가 활용형에 결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사뭇 흥미롭다.

(2019)에서는 “학생!”이라고 부를 때에, ‘학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내나 남편을 부르는 말’인 ‘여보’라는 단어는 명사로 처리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보’라는 단어는 『표준』에서 감탄사로도 처리하고 있는바, 이삼형 외(2019: 77)의 설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방민호 외(2019: 72)에서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이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된다고 하였으나 이때의 의미를 실질 의미가 아니라 기능으로 이해하면 모든 ‘입버릇 및 더듬거림’이 의미 없이 사용된다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그게, 음, 뭐, 쉽지 않겠어.’라는 문장에서 ‘음’과 ‘뭐’가 실질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분명 [머뭇거림]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방민호 외(2019)의 기술은 조금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검토할 품사는 ‘대명사’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는 ‘대명사’를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대명사는 명사만을 대신하는 품사가 아니다.

(10) ㄱ. 신선놀음에 도깃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주재미있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ㄴ.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의 단어 형성 과정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인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명사 ‘이’는 문장과 구를 모두 대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명사’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푸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품사는 ‘동사/형용사’이다. ‘동사/형용사’의 품사 분

류와 관련된 문제는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 정도를 언급할 수 있다. 먼저 방민호 외(2019)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방민호 외(2019: 72)에서는 활용을 ‘용언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예로 ‘읽다’는 ‘읽고, 읽으면, 읽는다, 읽으니’와 같이 활용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기술 문법의 진술과 차이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용언의 형태가 변화한다’고 하는 활용의 정의도 기술 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읽-’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고’, ‘-으면’, ‘-는다’, ‘-으니’처럼 뒤에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는 설명도 기술 문법의 설명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형인 ‘읽다’의 ‘-다’가 다른 어미로 적히므로 학습자들은 어미 ‘-다’가 어미 ‘-고’, ‘-으면’, ‘-는다’, ‘-으니’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는 ‘-다’가 다른 어미들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한국어 활용의 본질은 용언 어간 ‘읽-’이 어미 ‘-고’, ‘-으면’, ‘-는다’, ‘-으니’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어가 교착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먹다’의 ‘-다’가 다른 어미로 바뀐다고 설명하는 것 보다는 어간 ‘먹-’이 다양한 어미들과 결합한다고 설명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과서는 민현식 외(2019)이다. 민현식 외(2019: 61)에서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도 기술 문법의 정의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불규칙 용언의 어간은 특정 어미와 결합할 때, 공시적인 음운 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형태 교체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처럼 공시적인 음운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형태 교체가 일어날 때, 그 이형태 교체 양상이 표기에 반영되기까지 한다. 그런데 민현식 외(2019)의 정의대로라면 용언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sup>16)</sup> 용언 어간, 즉 불규칙 어간은 ‘어간’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학교 문법의 용어로, ‘긋다[劃]’의 ‘긋-’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그-’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현식 외(2019)의 어간 개념은 ‘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만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 문법에서의 ‘형태 변화’라는 용어와 ‘불변어/가변어’ 개념에 대한 우리의 단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검토한 5종의 교과서에는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를 기술할 때에 ‘형태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 변화’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기술 문법에서는 특정 형태의 통시적인 변화를 서술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형태 변화’라는 용어는 현대 한국어의 ‘마술’은 15세기의 ‘막술’로부터 ‘형태 변화’를 경험한 결과라고 서술할 때와 같은 서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 품사를 분류할 때에 사용하고 있는 ‘형태 변화’라는 용어는 ‘용언이 활용을 할 때 기본형으로부터 표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sup>16)</sup> 물론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형, 즉 ‘용언 어간+-다’의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현상을 ‘형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 문법의 ‘형태 변화’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기술 문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굳이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에서 품사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형태’를 기술하고자 한다면, ‘형태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기본형이 바뀐다’ 정도로 언급하거나 ‘변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기술이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검토할 개념은 ‘불변어/가변어’ 개념이다. 앞서 ‘형태 변화’라

16) 곧이어 언급하겠지만 기술 문법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현상을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17) 정희창(2016)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는 용어를 다루면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활용을 한다는 이유로 용언을 ‘가변어’, 즉 ‘단어의 일부가 바뀌는 말’로 분류한 것은 학교 문법이 가변어를 ‘기본형의 표기가 바뀌는 단어’로 이해하였기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기본형의 표기가 바뀐다는 것과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다음의 (11)을 보자.

(11) ㄱ. 이제 하던 것은 멈추고 집에 가는 것이 어때?

ㄴ. 이제 하던 거는 멈추고 집에 가는 게 어때?

(11ㄱ)의 의존 명사 ‘것’은 어떠한 조사가 결합하여도 표기가 바뀌지 않으므로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불변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11ㄴ)의 ‘거’와 ‘게’도 과연 불변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거’가,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표준』의 정의를 따른다면 ‘것’은 형태 변화를 보이는 명사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것’의 주격형과 보격형은 ‘게’로 실현되므로, ‘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때의 ‘게’도 형태 변화(표기의 변화)를 보이는 가변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자는 기본형이라는 개념이 용언 어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지적이 학교 문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이나 명사에 조사가 결합하는 현상은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의존 형태가 선행 요소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현상이다. 더욱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약정하고 ‘-이다’가 가변어라고 설명하는 학교 문법의 입장이라면 의존 명사 ‘것’과 관련된 형태 변화(표기 변화)를 어떻게 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가 교착어인 한국어의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형용(2016)의 지적은 학교 문법에서의 품사 분류 기준과 기술 문법에서의 품사 분류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진술이요, 학교 문법에서 한 번쯤은 고민하여야 할 만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4. 나오며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와 매체’ 과목의 5종 교과서에서 형태론과 관련된 내용 항목들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12)와 같다.

- (12) ㄱ. 학교 문법의 ‘단어’는 ‘음운론적 단어’로 정의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음운론적 단어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그 기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단일어’의 정의도 만족스럽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
- 나. 기술 문법에서는 혼성과 두음절어 형성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 형식의 감소가 전제되는 새말의 형성을 설명할 때에는 이 두 과정을 구별하지 않기도 한다.
- ㄷ. 학교 문법에서 단어 부류를 분류할 때에 기술 문법의 설명과 차이를 보이거나 학교 문법의 체계 내적으로 비정합적인 기술을 보이는 품사는 ‘조사’, ‘관형사’, ‘감탄사’, ‘대명사’ 등이 있다.
- ㄹ. 학교 문법에서 품사 분류 기준으로 ‘형태’를 설명하거나 용언의 활용에서 관찰되는 이형태 교체를 설명할 때에 ‘형태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불변어/가변어’ 개념이 정합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18)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의 폐지 문제는 국어가 교착어라는 사실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품사 분류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최형용(2015: 546)의 지적은 이러한 점에서 음미할 가치가 충분하여 보인다.

얼마 전, 한 수강생으로부터 고등학교 국어과의 문법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포기한 학습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문포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국어과의 문법 관련 지식을 습득할 때 어려움을 겪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 문법 지식을 습득할 때 학습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전문 용어들이 기술 문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의 전문 용어가 정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의 습득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이 글은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습득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욕심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은 학교 문법의 형태론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당장 우리는 ‘독서와 문법’과 ‘언어와 매체’의 내용 항목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또 ‘언어와 매체’로 개정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새로 생겼는지를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한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은 의미론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추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긴 논의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글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겪을 만한 문제들이 단 몇 가지라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은 후고의 과제로 미루어 두고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민현식 외,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2019.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2014.  
 방민호 외, 『언어와 매체』, 미래엔, 2019.  
 윤여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2014.  
 이관규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2014.  
 \_\_\_\_\_, 『언어와 매체』, 비상, 2019.  
 이도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2014.  
 이삼형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2014.  
 \_\_\_\_\_, 『언어와 매체』, 지학사, 2019.  
 최형용 외, 『언어와 매체』, 창비, 2019.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2014.

### 2. 논저

- 강민경, 「『언어와 매체』 과목의 국가 수준 평가에서의 쟁점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515~545면.  
 교육인적자원부,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구본관, 「2015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51-1, 국어교육학회, 2016, 89~133면.  
 \_\_\_\_\_, 황화상, 「표준 국어 문법 형태론 분야의 특징과 활용」, 『언어와 정보 사회』 3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8, 397~425면.  
 김은성 · 송소연,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쟁점 반영 양상 연구」, 『문법 교육』 32, 한국문법교육학회, 2018, 1~32면.  
 김홍범 · 전후민, 「학교문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독서와 문법” 교과서와 지도서 분석: “단어”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2013, 36~66면.  
 노명희,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255~281면.  
 문송희,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의 단어 형성법 비교: ‘언어와 매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9.

- 문숙영, 「학교 문법에서의 ‘문법 요소’ 기술 내용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27,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6, 375~412면.
- 박용찬, 「학교 문법 용어의 문제점 검토: 『문법』(2002)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우리말글』 75, 우리말글학회, 2017, 109~159면.
- 박재현 · 김은성 · 김호정,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II): 단어」,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8, 69~193면.
- 안소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단어 형성법 부분의 한자어 자료에 대한 검토」, 『어문연구』 4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55~79면.
- 오규환,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 오현아, 「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 문제에 대한 시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8,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73~105면.
- \_\_\_\_\_. 조진수, 「문법 교과서의 언어 단위별 교육 내용 구성과 범위 검토: 단어 단위에서 품사 분류 문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219~254면.
- 이선웅, 「기술문법과 학교문법: 총론」, 『국어학』 69, 국어학회, 2014, 167~205면.
- \_\_\_\_\_. 오규환,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국어학』 81, 국어학회, 2017, 263~294면.
- \_\_\_\_\_. 이은섭,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학회, 2013, 249~277면.
- 이찬영,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6.
- 이현희, 「『독서와 문법』 ‘단어의 형성’ 단원에 대한 검토」, 『언어와 정보 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549~583면.
- 정병철, 「형태소와 단어의 불분명한 경계에 대한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청람어문교육』 46, 청람어문교육학회, 2012, 513~544면.
- 정한데로, 「『독서와 문법』 교과서 ‘단어의 의미’에 대한 비교 검토」, 『언어와 정보 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585~616면.
- 정희창,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국어학회, 2014, 233~254면.
- \_\_\_\_\_. 「문법의 규범적 관점과 해석」, 『한말연구』 40, 한말연구학회, 2016, 225~250면.
- 조진수,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 유형화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2-1, 국어교육학회, 2017, 463~493면.

- 조진수·구본관, 「교과 간 용어 비교를 통한 문법 개념 교육 연구: 문법 교과와 과학 교과의 용어 비교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6,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261~291면.
- 주세형, 「학교 문법 다시 쓰기: 언어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2004, 461~498면.
- 최응환, 「문법교육 내용범주의 체계화에 대하여」, 『어문학』 142, 한국어문학회, 2018, 505~531면.
- 최형용, 「학교 문법 교과서의 품사 분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507~548면.
- \_\_\_\_\_,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2003.
- \_\_\_\_\_, 『한국어 형태론』, 역락, 2016.
- 허철규, 「학교 문법의 단어 분야 내용 비교」, 『언어와 정보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467~505면.
- Di Sciullo, A. M. & Williams, E., *On the Definition of Word*, MIT, 1987.

*Abstract*

Some Differences on the Descriptions of Morphological  
Phenomena between Korean School Grammar and Korean  
Descriptive Grammar

Oh, Gyu-hwan

In this paper, I compared some explanation about morphological phenomena of Korean school grammar(henceforth, KSG) with them of Korean descriptive grammar(henceforth, KDG) from the perspective of KD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ny Korean school grammar literature generally consider the notion of 'word' as phonological word, however, it is a problem that the definition of simple word is not satisfactory in KSG. Second, KDG distinguishes acronym from blends, however, some KSG does not distinguish acronym from blends. Third, cosa, adnominal, interjection, and pronoun show the differences on explaining word class in KDG and KSG. Fourth, between KDG and KSG, there are two differences on explanation about verbal conjugation. One is the notion of 'formal change' and the other is the notion of '(un)inflected form'.

【Key words】 descriptive grammar, school grammar, identification of morpheme, definition of word, internal structure of word, word-formation, word-class, verbal conjugation

논문 투고: 2021년 3월 15일, 심사 완료: 4월 8일, 게재 확정: 4월 22일.